

디자인 수다 08

책 만들기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어쩌다, 책 만들기

“책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C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이 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하고 D는 생각했다.

“우리 엄마 올해 칠순이거든. 그래서 엄마 작품 중에 괜찮은 것만 추려서 도록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C의 어머니는 화가였다. 지금은 작품 활동을 하지 않지만, 젊은 시절엔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다.

“작품 사진이랑 그동안 전시했던 팸플릿 사진 찍어 보낼게. 네가 보고 사진 상태 괜찮은 것만 골라서 예쁘게 만들어줘.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래. 그림 카톡 할게.”

아직 할지 말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대화가 일방적으로 흘러가 버렸다. ‘어떡하지? 예산을 물어보지 못했네.’ D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너무 많은 걸 설명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D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깐 한숨을 돌린 D는 C에게 카톡을 보냈다.

“언니, 근데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예산은 디자인과 편집 비용을 제외하고도 인쇄 방식과 부수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었다. 어떤 종이로 몇 페이지 분량에 몇 권이나 어떻게 인쇄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래서 D는 C의 예산을 미리 알고 싶었다. 예산에 맞게 부수와 디자인 작업량을 조정해서 최대한 서로 원하는 지점을 맞춰보려는 생각이었다.

마음을 다잡은 D는 카톡 대신 C에게 전화를 걸어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D는 C에게 책 만들기는 일방통행으로 만들 수 없으며, 서로의 아이디어와 구상을 적절하게 잡아나가는 과정임을 길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네가 다 알아서 해줘.’라는 말은 사실상 ‘쿨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설명했다. C는 D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이니, C의 기획이나 참여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D의 말에 C는 수긍했다.

“알았어.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네. 제가 일 진행하면서 자주 상의드릴게요.”
부수와 작업 기간, 예산을 대략 맞추고 그제야 한숨을 돌린, D는 이제 본격적인 기획 작업에 돌입했다.

책 만들기에 대한 오해

C의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책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세부적인 기획 없이 막연한 상태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표지 디자인만 해드려요. 인쇄소 연락은 직접 하셔야 해요.’처럼 보통 자신의 전공 분야 안에서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인을 상대로 하다 보면 무 자르듯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편집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책의 콘셉트에서부터 표지 디자인, 인쇄와 교정, 교열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양측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다. 디자이너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도 그걸 모르네.’라는 섭섭함이 남고, 클라이언트는 ‘애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볼까? 이 콘셉트는 좀 별론데... 하기 싫은 걸 마지못해서 하는 건가?’라며 디자이너의 실력과 진정성을 의심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시 D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데이터 정리

D는 기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C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정리하기로 했다. C에게 받은 작품 사진은, 당황스럽게도 예전에 찍은 아날로그 필름이었다. 우선 이 필름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야 했다. D는 필름 스캔 업체를 찾아 필름을 택배로 보냈다. 대략 10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다. D는 C에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작품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고, 해당하는 작품의 제목과 사이즈 등의 메타데이터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니, C도 충분히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처음부터 필요한 이미지와 이미지에 들어갈 설명을 정리해서 건네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C는 마침내 이해했다.

C에게 데이터 정리를 의뢰한 D는 이제 큰 틀에서의 기획에 들어갔다.

기획하기

기획에는 정답이 없지만 러프하게 나누자면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책의 제작 목적과 최종 독자가 누구이며 책의 효용 가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D의 경우, 책의 제작 목적은 ‘선물’이고, 타겟은 ‘C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될 것이고, 효용은 ‘어머니를 감동하게 하는 것’ 정도 될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D는 C와 상의를 했다.

“언니, 어머님에게 감동을 주고, 지인들이 봐도 근사한 책이 나오려면,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종이도 좀 두꺼운 거로 가고, 표지도 하드커버로 가고 싶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응, 좋아!”

“그럼 언니, 내일 잠깐 만나요. 실제로 보여드릴 게 좀 있어요.”



D는 C와 만나 다양한 판형과 종이의 종류를 결정할 생각이었다. 판형이란 책의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실제로 책은 목적에 따라 셀 수 없이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에 따라 책의 느낌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다음 날 D는 책꽂이에서 책 몇 권을 골라 집을 나섰다. D는 찬찬히 한 권씩 샘플로 가져간 책을 보여주며 각각 판형의 특징과 느낌을 설명했다. 처음에 조금 귀찮아하던 C는 구체적인 기획 과정에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내기 시작했다.

“네 말대로, A4 사이즈는 너무 무난한 것 같아. 음... 가로 사이즈를 좀 줄이면,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이 사이즈 어때?”

C는 가지고 간 A4 이면지를 접어 본인이 원하는 느낌의 사이즈를 보여줄 만큼 적극적이었다. D는 이제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구체화해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D는 다양한 종이 스와치를 C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언니, 이 종이 좀 만져봐요. 이건 완전 백색인데, 조금 광이 없어서 단정한 느낌이 나는데... 음, 이 종이는 광이 나죠?... 또 이 종이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둘은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마침내 판형과 제본 방식과 종이의 종류를 결정했다.

표지 디자인

큰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 D는 필름 스캔 업체에서 사진 파일을 받을 때까지 표지 디자인을 준비했다. 표지 디자인엔 책의 첫인상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때로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때로는 실험적인 구도나 제목의 배치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담담한 인상이나 난해한 얼굴을 한 책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첫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표지 디자인에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콘텐츠에 대한 이해였다.

D는 C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작품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작품의 소재는 다양했다. 시골의 전원풍경을 그린 것에서부터 의자에 앉은 중년 여인의 모습, 여러 점의 정물화와 대로변의 줄줄이 늘어진 포장마차의 풍경까지. 꼼꼼히 작품을 들여다보던 D는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빈 그릇에 주목했다. 마침내 D는 표지에 들어갈 작품 3점을 마음속으로 낙점하고 표지 디자인에 들어갔다.

이미지 보정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필름 스캔 업체에서 받은 사진을 보니 필름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크래치와 이 물질이 그대로 스캔 되어 있었다. 도록 콘셉트와 맞지 않는 빛바랜 사진도 생각보다 많았다. 고민하던 D는 C와 상의하기로 하고 C에게 사진을 전달했다.

“언니, 사진이 백여 장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이건, 네가 알아서 하기 힘들겠네. 엄마가 어떤 작품에 애착이 있는지는 내가 잘 아니까. 추려서 알려줄게.”

도록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사진 보정 작업이 관건이라고 생각한 D는 사진 보정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추가 비용도 C에게 설명했다.

“정말, 그러네. 난 사진만 그냥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원본 사진 보니까 이미지 수정을 많이 해야겠네.”

C가 작업의 과정을 이해하자 D는 마음이 한결 수월해졌다. D는 C가 추려준 사진과 추가 사진을 받아서 보정작업에 들어갔다. 작품 사진의 티끌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배경의 톤도 조정했다. 이제 D는 구체적인 편집 디자인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편집 디자인

편집이란, 수많은 정보 중 유용한 지식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강조점에 따라 축소와 확장 등의 전반적인 배치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D는 작품 사진을 시기적으로 3단계로 나누고 각각 챕터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통으로 들어갈 책의 여백을 설정하되, 챕터마다 레이아웃의 변형을 주고 상단에 색상으로 챕터를 구분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D는 본문에 들어갈 레이아웃을 몇 장 뽑아서, 먼저 만들어 놓은 표지 디자인 시안 세 점과 함께 C에게 전달했다. C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신속하게 보내왔다. D의 머릿속에서도, C의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형상이 잡혀가는 느낌이었다. D는 몇 번의 수정과 피드백을 더 거친 다음 마침내 최종 파일을 완성하고 C의 컨펌(최종 승인)을 받았다.

인쇄 작업

이제 인쇄 과정만 남았다. 인쇄는 부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했다.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 인쇄에 적합한 디지털 프린팅과 대량 인쇄가 가능하고 고급 인쇄물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대표적이다. D는 이미 C에게 인쇄 방식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오프셋 인쇄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D는 집에서 먼저 테스트 프린트를 했다. 모니터로 보는 검수보다 종이로 봐야 빠진 것이나 놓친 부분이 더 잘 보였다. 먼저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 오탈자는 없는지, 그리고 폰트의 자간이나 행간은 괜찮은지 뜯어봤다. 다음에는 컬러로 프린트해서 작품 사진 및 전체를 다시 한번 검수했다. 최종 파일을 PDF로 만들어 C에게도 최종 검수를 부탁했다.

틀린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 D는 C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인터넷으로 인쇄 예약을 했다. 제작 사양을 꼼꼼히 기록하고 인쇄소에 최종 파일을 넘겼다. 굳이 인쇄소를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D는 인쇄소 감리를 나가기로 했다. D는 인쇄소 실장님과 최종적으로 출력 의뢰서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테스트 프린팅으로 인쇄 교정을 봤다. 다행히 색상도 잘 나왔고 유실된 텍스트나 이미지는 없었다. D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면 C에게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책 만들기 _ 공동 작업

책을 만드는 과정은 모든 디자인 과정이 그렇듯,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작업에 대한 이해는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작업 이해도를 빨리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과 기획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책을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책, 더불어 디자이너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